한의약人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우수한 제품 개발, 지역과 함께 발전할 것

(주)천약선 이기혁 대표

(주)천약선 이기혁 대표는 현대사회 속 지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천연물에서 찾고 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이기혁 대표를 만나 기업 운영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천약선 이기혁 대표입니다. 천약선(天藥洗)은 '하늘에서 내린 약초로 깨끗하게 씻어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천약선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 생긴 피부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피부가 민감해진 것도 고민이었지만, 아이가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제천의 약초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가족의 건강한 피부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철학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성분은 최소화하고 안전하면서도 최적의 사용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연물을 연구하고, 천연물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천약선에서 개발한 제품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진행 중인 연구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엠지 프레쉬 치약'이 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로 혓바늘이 돋고 잇몸 염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한 끝에 개발한 제품입니다. 2022년부터 천연물 성분 분석 및 성분 배합을 시도한 끝에 성공하여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엠지 프레쉬 치약은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천연물 허브를 배합하고 코코넛 계면활성제, 스피아민트, 박하유, 레몬오일, 자일리톨 등을 첨가하여 만든 비건 치약입니다. 연마제, 합성 계면활성제, 향료가 첨가되지 않아 임산부를 비롯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엠지 프레쉬 치약 개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로 천연물 활용 무알콜 천연 스틱 가글 제품 'T-HOOO(티후)'도 출시했으며, 카렌듈라 인퓨즈 오일과 황기 추출물을 활용한 보습 스틱을 개발하여 중국 산후조리원에 납품한 성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제천에서 재배에 성공한 국내산 감초의 표준화 사업에 힘쓰고 있는데요, 감초의 성분 분석 및 멜라닌 생성 억제 시험 등을 진행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한방 추출물과의 성분 배합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허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물 성분 배합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선보인 제품이 '엠지 프레시 치약'입니다. 같은 해에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실리콘밸리 국제발명전시회(SVIIF)에서 은상과 중국발명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꾸준한 천연물 및 한방추출물 연구·개발로 안전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진행하는 박람회, 엑스포 등에도 참여하여 (주)천약선의 천연물 제품이 가진 기능성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천연물로 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이미 효과나 성능이 분명하게 밝혀진 성분을 가지고 하는 제품 개발에 비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천연물 추출물은 산화, 변색, 침전 등 제형의 안정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분 배합 시 여러 면에서 화학 성분보다 표준 편차가 심합니다. 천연물은 원료의 산지, 계절, 수확 시기, 건조 및 추출 방식에 따라 성분 함량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황기 등의 성분 검사를 했을 때 같은 종이라고 해도 생육 환경, 기후 환경에 따라 유효성분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및 효능입증 등으로 일반제품보다 제조원가도 높다는 점도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한약재 추출물 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제품 개발에 큰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건강하게,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제품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천연물과 한약재 추출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한 시험데이터 및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한방, 천연물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주)천약선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서 선보이게 될 제품이 있습니다. 감초 추출물, 황기 추출물, 병풀 추출물을 포함한 '하이드로겔 4세대 마스크팩'인데요, 이 제품은 제천에서 재배되는 국내산 감초를 연구 개발한 결과물로 멜라닌 생성 억제 기능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피부 맑기 개선, 피부 거칠기 개선에 대한 임상 시험은 통과 했으며, 현재 기능성 시험 및 안정성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 제품도 곧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천약선의 목표는?

한방과 천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및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료 표준화가 완료되면 원료 추출 및 원료 공급-제품 양산(자체브랜드)-의약품 개발이 제천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능해지게 되어 한방 천연물 제품 개발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천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천이 천연물과 약초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지역이었으며, 그와 관련된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의 한방천연물클러스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약선이라는 기업이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한 천연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널리 인정받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지식재산기업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천연물 및 한의약과 관련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천연물과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숨은 보석 찾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시장을 기준으로 천연물, 한의약 시장은 연평균 7~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K-뷰티, K-먹거리도 이미 세계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만 세계인 모두가 선호하는 천연물 및 한의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학적 검증과 원료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단순히 천연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